

毅堂 朴世和의 處義觀과 絶命詩

최 식*

<目次>

- | | |
|--------------------|------------------|
| I. 머리말 | III. 毅堂의 自靖과 絶命詩 |
| II. 毅堂의 現實 認識과 處義觀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본고는 대전환·대변혁의 격동기에 충북 제천을 중심으로 講學 활동에 매진하며 학맥을 전승한 毅堂 朴世和(1834~1910)를 살펴보았다. 당시 상당수의 지식인은 自靖·亡命·武鬪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바 있다. 의당은 ‘斥邪衛正’·‘尊華攘夷’ 등을 주장하여 척사위정파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바 있으나, 병으로 의병투쟁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조선을 떠나 중국 西間島로 망명을 기획했다가 중도에 포기한다. 그는 평생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채 후학 양성에 전념하다가 庚戌國恥를 맞아 自靖을 결행하여 의리를 실천한 儒林이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의병투쟁도 아니고 해외로의 망명도 아닌 의리에 입각한 자정인 셈이다. 晦堂 尹膺善(1854~1924)은 의당을 ‘亂世의 大賢’·‘不世出의 豪傑’·‘時代의 儒宗’으로 추앙하며, 一節(自靖)로만 단정하는 세대를 경계한다. 무엇보다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으며 華夏는 夷狄이 될 수 없고 사람은 禽獸가 될 수 없다.’는 斥邪衛正와 尊華攘夷에 투철한 處義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자의 ‘國可亡也, 道不可亡也.’을 신봉하던 다른 유림과는 달리, 의당은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성통곡한다. 나라가 망하면 道와 華夏도 모두 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실은 더욱 암울하고 참담하다. 그는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자정을 결심한다. 단식 23일째 되는 날,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남긴 그의 유언은 처의관을 집약적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수석연구원 / choicesik@hanmail.net

으로 보여준다. 이는 1904년 화양동에 강회에서 피력한 내용의 연장선이다. 화양동은 화양서원과 만동묘가 있는 小中華의 상징적 공간으로 ‘華陽’는 바로 ‘華夏’를 의미한다. 이제는 나라도 망하고 道와 華夏까지 망하니, 華夏는 夷狄으로 변하고 사람도 禽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식하여 자정하는 극단적인 선택도 주저하지 않는다. 더욱이 자정을 결심하고 남긴 絕命詩 2수에는 의당의 현실 인식과 처의관이 고스란히 전한다.

【주제어】 朴世和, 斥邪衛正, 尊華攘夷, 處義觀, 自靖, 絕命詩

I. 머리말

근대는 서구 문명에 의해 주도되었던 바, 西勢東漸의 물결은 기존 세계의 질서를 유린·해체하고 통합하기에 이른다. 주지하는 대로 19세기부터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세계도 폭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 두 번에 걸친 아편전쟁의 패배로 동아시아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고, 다시 일본에게 패배의 쓴 잔을 맛보게 된다. 더욱이 明治維新을 통해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은 淸日戰爭에서 승리한 후 조선 침략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조선은 1876년 개항을 계기로 근대로 진입하는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문호를 개방한 터라 제국주의 열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만다. 이후 1884년 甲申政變을 지나 1894년 甲午更張은 개혁·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자주독립의 기치를 세우고 근대국가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乙巳勒約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며, 1907년 丁未七條約으로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끝내 1910년 庚戌國恥로 국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주체적인 근대로의 전환은 완전히 차단되고 만다. 그야말로

조선은 1876년 개항부터 1910년 국권 상실까지 대전환·대변혁의 격동기를 겪는다. 근대로의 전환과 변혁은 東西와 新舊의 문명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당시 지식인은 文鬪(애국계몽운동)와 武鬪(의병투쟁)를 전개하여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 행위에 맞선다. 일반적으로 애국계몽운동은 선진 문물에 개명한 지식인이 선봉에 서고, 의병투쟁은 성리학으로 무장한 儒林이 주축을 이룬다. 이는 ‘척사위정의 논리·문명적 시각의 비교우위의 논리·문명개조의 논리’에 깊은 연관을 맺는다.¹⁾

본고는 대전환·대변혁의 격동기에 충북 제천을 중심으로 講學 활동에 매진하며 학맥을 전승한 毅堂 朴世和(1834~1910)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상당수의 유림은 自靖·亡命·武鬪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바 있다. 의당은 ‘斥邪衛正’·‘尊華攘夷’ 등을 주장하여 척사위정과 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바 있으나, 병으로 의병투쟁에 참여하지 못한다.²⁾ 또한 조선을 떠나 중국 西間島로 망명³⁾을 기획했다가 중도에 포기한다.⁴⁾ 그는 평생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채 후학 양성에 전념하다가 경술국치를 맞아 自靖을 결행하여 의리를 실천한 유림이다. 그의 마지막

-
- 1) 임형택, 「한국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논리」,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참조.
 - 2) 尹膺善, 『毅堂集附錄』 권2, 「行狀」, “時虜勢益猖, 專奪國政, 有毀聖廟吞邦國之說, 物論煽動. 先生聞之大慟曰: ‘聖廟毀矣, 則吾道永絕. 誦法孔子者, 安忍坐視以保軀命耶?’ 遂入聞慶山中, 將謀舉義, 措劃未成, 而眩病大作. 時先生年七十二, 自度不能視事, 仍罷歸. 未幾, 事泄於彼, 爲聞慶賊所執, 轉至漢城夷獄, 歷七箇月而拘.”
 - 3) 寧齋 李建昌의 아우 耕齋 李建昇(1858~1924), 霞谷 鄭齊斗의 후손 侍郎 鄭元夏(1855~?), 耳溪 洪良浩의 六代宗孫 汶園 洪承憲(1854~?), 大溪 李承熙(2847~1916), 守坡 安孝濟(1850~1912), 大訥 盧相益(1849~1941), 小訥 盧相稷(1855~1931) 형제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영남지역의 지사로 망명 이후 압록강 건너 安東 일대를 중심으로 거처를 마련하고 서로 왕래하며 교분을 쌓았다. 이희목, 「大訥 盧相益의 亡命生活과 遺民詩」, 『한문학보』 제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참조.
 - 4) 윤응선, 『毅堂集附錄』 권2, 「年譜」, “[己酉] …(中略)… 先是, 先生謀欲去國入西間島, 爲保守之計, 門人朴海俊, 出力經紀. 既而聞中國又大亂, 乃止.”

선택은 의병투쟁도 아니고 해외로의 망명도 아닌 의리에 입각한 自靖인 셈이다. 晦堂 尹膺善(1854~1924)은 의당을 ‘亂世의 大賢’·‘不世出의 豪傑’·‘時代의 儒宗’으로 추앙하며, 一節(自靖)로만 단정하는 세태를 경계한다. 무엇보다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으며 華夏는 夷狄이 될 수 없고 사람은 禽獸가 될 수 없다.’는 척사위정과 존화양이에 투철한 處義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본고는 의당의 處義觀과 絕命詩를 주목하고자 한다. 의당이 척사위정·존화양이에 입각하여 혼란한 시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가를 통해서 척사위정파의 현실 인식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의당이 경술국치를 맞아 自靖에 이르는 과정과 絕命詩를 통해서 여타 절명시와의 변별점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구한말의 儒宗으로서 의당의 사상적 측면뿐 아니라 문학적 측면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II. 毅堂의 現實 認識과 處義觀

조선은 江華島條約으로 서구에 문호를 개방한 이래 庚戌國恥로 국권을 상실할 때까지 4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근대화의 험난한 여정을 겪는다. 西勢東漸의 근대화 물결은 東西 문명의 충돌과 新舊 문명의 대결을 야기한다. 당대 지식인들은 서세동점의 혼란한 격동기를 맞아 나름대로 현안을 타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특히, 척사위정파는 斥邪衛正과 尊華攘夷로 무장하여 쇄국을 주장하고 의병투쟁을 주도하는 등 근대화를 완강히 거부한다.

5) 상동, 「行狀」, “夫道在天下, 不能無屈伸否泰, 而道之將墜也, 必生大賢, 以擬其時, 況今日之變? 道之形影, 永絕於穹壤之間, 則使愚夫愚婦, 知其有天無二日民無二君華不可爲夷人不可爲獸之爲天之經地之義者, 非先生而誰歟? 若不求之學問體用之全, 而斷之以一節, 則非所知先生也.”

의당은 척사위정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孟子』와 『春秋』에 기반하여 척사위정파 존화양이를 주장한다. 따라서 의당이 혼란한 시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가를 살펴보면, 척사위정파의 현실 인식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근대로의 전환에서 文明과 開化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 먼저, 1896년 俄羅斯 使行을 체험한 春坡 金得鍊(1852~1930)의 『環瑯吟艸』에는 문명과 개화의 내용이 잘 드러난다.⁶⁾ 『환구음초』는 西洋文明에 대한 見聞 紀行뿐 아니라 新世界에 대한 감회와 동아시아 정세를 포착한다. 더욱이 서양을 문명과 개화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춘파는 아라사의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 도시 전체가 3일 동안 등불을 켜는 광경을 보고 감회를 피력한 바 있다.⁷⁾ 시야에 포착된 모스크바의 야경은 瑤池에서 신선들이 모여 성대하게 베푸는 잔치에 견줄 만큼 화려하고 아름답다. 도리어 중국의 명소인 廣陵의 觀燈과 鰲山의 銀樹도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는 아라사를 문명의 세계, 君民이 同樂하는 태평시대로 간주한다. 반면, 몽고의 국경을 지나면서 전통을 고수하여 변발차림에 긴 도포를 입고 기후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천막에서 생활하는 몽고인들의 모습을 목격한다.⁸⁾ 아라사가 문명의 세계인 반면, 몽고는 여전히 문명세계와는 동떨어진 원시적인 생활상 그 자체이다. 한마디로 혼돈이 열리지 않은 태초의 세계인 셈이다. 춘파는 문명과 개화를 물질 문명의 측면에서 서구식 근대화-문명화를 이룩한 상태로 파악한다.

의당과 마찬가지로 경술국치에 통분해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아편을 먹고 자결한 梅泉 黃玟(1855~1910)은 당시 개화파가 주장하는 개화의 본

-
- 6) 최식, 「1896년 俄羅斯 使行, 『環瑯日記』와 『環瑯吟艸』-使行錄의 觀點에서 바라본 俄羅斯 使行」, 『한문학회』 제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참조.
- 7) 金得鍊, 『環瑯吟艸』, 「滿都三夜點燈」, “完如瑤池敞仙宴, 鳳髓龍膏徹夜燒. 廣陵觀燈何足道? 鰲山銀樹太蕭條. 況值今日文明世, 君民共樂奏笙簫. 我從東方仗玉節, 良夜來聽太平謠.”
- 8) 상동, 「過蒙古境, 蒙人之入俄籍者甚多, 辮髮長袍, 尙不改焉. 設幕野居遊牧而已」, “長袍辮髮坐牛車, 遊牧時遷毳幕居. 部落自分生熟種, 渾圖未開太荒初.”

질은 ‘開物化民’으로, 문명 개발과 문화인 육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개화의 근본을 무시하고 말단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더욱이 개화란 처음 보는 새로운 말이지만 사실은 동아시아 전통의 이상적인 정치와 다를 바 없다고 단언한다.⁹⁾ 매천은 척사위정을 고집하지 않고 진정한 개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셈인데, 東道西器論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와는 달리 위정척사의 선봉에 섰던 良齋 田愚(1841~1922)는 선교사 알렌과 蔡爾康이 펴낸 『中東戰紀本末』를 읽고서 탄식을 금치 못한다. 그는 “오늘날 이른바 時務를 아는 사람은 그 견해가 대부분 이러한 부류이다. 이와 같은데도 문물을 열어 백성을 교화할 수 있겠는가?”¹⁰⁾라고 반문하며, ‘開物化民’의 허무맹랑함을 비판한다. ‘시무를 아는 사람’은 바로 개물화민의 선봉에 선 당시 개화파를 지칭한 내용으로, 『중동전기본말』를 저술한 채이강의 논리와 ‘개물화민’은 전혀 다를 바 없다. 이렇

9) 黃玠, 『梅泉集』 권7, 「言事疏」, “竊伏見甲午以來, 時局日變, 百度更張, 赫然建中興萬世之基. 觀聽非不美矣, 而夷考其實, 禍難之作, 危亡之兆, 反有甚於更化之前, 此何故也? 徒慕乎開化之末, 而不究其本也. 天下之事, 毋論巨細, 莫不有本有末, 奚獨於開化而無之哉? 夫開化云者, 非別件也, 不過開物化民之謂, 則開物化民, 可以無其本而致之乎? 若親賢遠姦·愛民節用·信賞必罰之類, 卽所謂本也. 若鍊軍伍·利器通商販之類, 卽所謂末也. 西人之法, 雖與中國異, 今考彼所謂萬國史, 則其興也, 必由於立其本. 苟無其本, 雖強必斃, 興亡之跡, 種種可考. 由是觀之, 開化之名, 雖屬創見, 其實與中國之治, 無以異也.”

10) 田愚, 『良齋先生文集前編』, 「休言」, “近見清人蔡爾康所著宋儒貽禍中國論, 大槩引漢唐之嫁女稱臣於匈奴突厥, 而謂不足爲二代之恥, 乃謂宋儒傳會古訓, 攘斥夷狄. 然內夏外夷, 魯論未著, 今俗深中宋儒蠱毒, 輒曰外人夷也, 當斥遠云云. 噫, 此何言也? 書曰, 蠻夷猾夏, 寇賊姦宄, 以蠻夷與寇賊並言之. 詩曰, 戎狄是膺, 孟子曰, 禹遏洪水, 驅蛇龍, 周公膺夷狄, 以戎狄與蛇龍洪水並言之. 孟子又嘗以鳩舌斥南蠻矣. 果使孔子無內夏外夷之意, 又何以稱管仲之功曰, 微此, 吾其被髮左衽矣乎! 且如夷狄之有君, 及雖之夷狄, 不可棄. 雖蠻貊之邦行矣之類, 亦無非外夷之意, 而今謂魯論未著, 將誰欺? 欺天乎? 抑亦習夷既久, 與之俱化, 而不自覺也歟? 爾康又謂復讎, 孔子不言, 而出於宋儒. 余謂無讎則已, 既有讎, 則當視其事之大小而處之. 小小侵陵, 雖不可一一理會, 若弑君殺父與憑威力以臣妾我之類, 又豈可不報? 湯爲童子復讎, 孔子有不共天以直報怨之訓, 安可謂非聖人所言? 設有人于爾康之父, 或毆打之, 或殺害之, 則渠將謂復讎, 宋儒之異論, 而恬然無報復之心乎? 今之所謂識時務者, 所見多此類也. 若是而可以開物化民乎? 大可歎也.”

듯 개화에 부정적 시각을 견지한 간재는 ‘國可亡而道不可亡’을 명분으로 의병투쟁에도 참여를 거부한다. 이와 같이 당대 지식인들은 개화(개물화민)를 바라보는 입장도 다르고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도 제각각이다.

의당은 무엇보다 ‘仁’을 책무로 삼고 ‘義’에 입각하여 시대를 인식하고 대응한다. 「毅堂銘」은 생활 지침에 해당하는 좌우명으로 그의 철학을 오롯이 담고 있다.

强以自勝	强으로 스스로를 이기고
忍以克達	忍으로 仁에 도달하네. ¹¹⁾
大旣先立	큰 것이 먼저 세워지면
小不能奪	작은 것도 빼앗을 수 없네.
…(中略)…	
噫惡可已	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擔負者仁	짊어진 것은 仁이네.
畏兢亶亶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부지런히 힘써
唯一終始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네. ¹²⁾

1879년 金直淵은 安邊府에 재직할 때, 의당이 매우 부지런함을 흠모하여 ‘毅堂’이란 堂號와 記文을 로 써준 적이 있다.¹³⁾ 이전까지 그는 ‘默菴’으로 자호한 바 있는데, 이는 『논어』와 관련이 깊다.¹⁴⁾ 아마도 공자의 가르침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학자 본연의 책무를 인식하고 체득한 듯하다. ‘의당’이란 堂號 역시 『논어』와 연관된다.¹⁵⁾ 그는 주자의 설¹⁶⁾

11) 『孟子』, 「盡心下」, “孟子曰, 人皆有所不忍, 達之於其所忍, 仁也.”
 12) 朴世和, 『毅堂集』 권5, 「毅堂銘」.
 13) 윤응선, 『毅堂集附錄』 권2, 「年譜」, “[己卯(1879)] …(中略)… 先生嘗自號默菴, 時金直淵知安邊府, 慕悅先生甚勤, 以毅扁先生之堂, 又爲之說.”
 14) 『論語』, 「述而」, “子曰, 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哉?”
 15) 『論語』, 「泰伯」, “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에 의거하여 ‘毅’를 ‘強’과 ‘忍’으로 풀이하고, 다시 ‘仁’과 연결시켜 자신의 책무로 삼는다. 仁은 신체로 힘써 실천하기에 무겁고, 또한 죽기 전까지 한 순간도 보존하는데 게으름을 피울 수 없어 멀다. 따라서 의당은 ‘仁’을 책무로 삼아 시종일관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부지런히 힘쓸 것을 다짐한다.

또한 「墓碣銘」은 尊華攘夷와 崇正闢邪에 엄격한 의당의 모습을 전한다.

일찍이 尊華攘夷·崇正闢邪의 학설에 엄격하여, ‘春秋大義의 해당하는 華夷의 경계는 萬古綱常으로 정해지는 것이니, 綱常이 무너지고 어지러움은 진실로 이단의 학설이 正學을 해치는데서 비롯되었다.’라고 하고서 항상 엄격한 말로 배척하였다.¹⁷⁾

春秋大義에 해당하는 尊華攘夷는 萬古綱常으로 崇正闢邪(斥邪衛正)과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척사위정이 무너지면 존화양이도 사라지고, 존화양이가 사라지면 척사위정도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존화양이와 숭정벽사(척사위정)는 의당 處義觀의 핵심을 형성한다.

1884년 甲申政變으로 조정에서 毀服令을 내리자, 의당은 “오랑캐의 문화로 中華를 변화시키니, 어찌 차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며 옛 의복 제도를 고수하고 학자에게 바꾸지 말 것을 당부한다.¹⁸⁾ 실제로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실패하고 도리어 중국과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기에 이른다. 당시 의당은 맹자의 가르침¹⁹⁾을 상기하며 옛 의복 제도를

-
- 16) 주자는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弘, 寬廣也. 毅, 強忍也. 非弘, 不能勝其重, 非毅, 無以致其遠. 仁者, 人心之全德, 而必欲以身體而力行之, 可謂重矣, 一息尙存此志, 不容少懈, 可謂遠矣.”
- 17) 윤응선, 『毅堂集附錄』 권2, 「墓碣銘」, “嘗嚴於尊攘崇闢之說, 以爲春秋華夷之大防, 萬古綱常之所由定, 而綱常之壞亂, 實昉於異說之害正, 常嚴辭以斥之.”
- 18) 윤응선, 『毅堂集附錄』 권2, 「年譜」, “[甲申(1884)] …(中略)… 朝家有毀服令, 先生聞之大慟曰: ‘用夷變夏, 寧忍爲也? 禍福之來, 天而已’ 仍守舊制, 命學者勿撓改.”; 「墓碣銘」. “甲申聞毀服令, 固守舊制曰: ‘禍福天也. 用夷變夏, 寧忍爲也?’”

고수하는데, 이는 존화양이이란 春秋大義에 기반한다.

1895년 乙未事變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削髮令이 내려지자, 의당은 “경서를 안고 산으로 들어가 의관을 고수하며 하루라도 吾道와 華夏를 기다리고 선조의 묘 아래에서 목숨을 마치더라도 만족한다.”는 뜻을 동지들에게 보인다.²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자기 목숨보다 중하게 여겼던²¹⁾ 유림에게 삭발령은 너무 가혹한 처사였고,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초래한다. 상당수의 유림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저항하기에 이른다.²²⁾ 의당은 당시 의리를 운운하며 ‘以身殉道’하는 세태를 묵과하지 않고 날카롭게 비판한다.²³⁾ ‘以身殉道’가 ‘천하에 도가 없을 때에는 몸으로써 도를 따른다.’²⁴⁾는 맹자의 가르침이지만, 그렇다고 상투 자르는 걸 치욕으로 여겨 목숨까지 버리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

의당은 당시 혼란한 상황을 전하고 미래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피력한다.

世界誠純坤
茫茫何所之

세계는 참으로 純坤이니
어두컴컴하여 어디로 가는가?

- 19) 『孟子』, 「滕文公上」, “吾聞用夏變夷者, 未聞變於夷者也.”
- 20) 윤웅선, 『毅堂集附錄』 권2, 「年譜」, “[乙未(1895)] …(中略)… 明成皇后昇遐, 行望哭禮. 內賊外夷, 締結作亂, 有虐弑之變, 久而後始頒喪. 先生率門徒舉哀. …(中略)… 時毀形之禍甚急, 先生以書告書社同志曰: ‘抱經入山, 保守衣冠, 以待一日吾道一日華夏, 而畢命於先墓下, 足矣.’ 年月下書與道俱亡人五字.”
- 21) 『孝經』,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 22) 勉菴 崔益鉉은 단발령이 내려지자 산속으로 숨거나 바다에 빠져 종적을 감추고 싶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崔益鉉, 『勉菴集附錄』 권2, 「年譜」, “先生自八月國變以後, 常憂憤, 屢廢寢食. 及薙髮令下, 尤不欲生, 擬大會鄉士, 爲復髻保髮之計, 而若終不可得, 則遜山蹈海, 藏蹤滅影, 亦不害爲自靖之道也.”
- 23) 박세화, 『毅堂集』 권5, 「書示書社同志」, “以身殉道, 動不動是今日義也. 抱經入山, 保守衣冠, 以待一日吾道一日華夏, 而畢命於先父母墓下, 足矣. 出門攬轡, 迢迢入望者, 菲億山也. 今不可無一語相告, 願諸賢守志毋惑焉.” 「年譜」에는 “[甲辰(1904)] …(中略)… 九月設講會于華陽洞. …(中略)… 有「書示同志」, 「講會日記」.”로 되어있는데, 향후 고증이 필요하다.
- 24) 『孟子』, 「盡心上」, “天下有道, 以道殉身, 天下無道, 以身殉道, 未聞以道殉乎人者也.”

抱經一慟哭
天乎復生時

경서를 끌어안고 한바탕 통곡하니
하늘이 다시 태어나는 때이네.²⁵⁾

의당은 당대를 陰氣로 가득하여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으로 인식한다.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야욕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세계와도 같다. 따라서 小中華를 자처하고 道脈을 계승하던 유림의 한 사람으로 경서를 끌어안고 한바탕 통곡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래도 희망은 버릴 수 없듯이, 坤卦에서 陽이 완전히 작아져서 없어지는 순간에 다시 새롭게 陽이 자라기 마련이니, 純坤 또는 純陰에도 陽이 없는 때는 없는 법이다. 지금은 비록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언젠가는 純坤에서 陽이 자라나듯이 세상이 바뀔 것을 기대한 대목이다.

당대가 陰氣로 가득하다는 인식은 1907년 9월 26일 일본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修堂 李南珪(1855~1907)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생각건대, 중국은 침몰되어 萬國은 풍속이 같아지는데, 오직 우리나라는 檀君·箕子의 舊邦으로 孔子·孟子的 遺教를 받들어 衣冠과 文物을 보존하고 있다. 그나마 陰이 성대한 가운데 陽이 희미한 형편인데 그것도 말살된 지경에 이르렀다. 아아, 어찌 천도란 말입니까? 어찌 천도란 말입니까?²⁶⁾

乙巳勒約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중국뿐 아니라 萬國이 서세동점의 물결에 휩쓸리는 분위기를 전한다.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만이 華夏 문명의 최후 보루로 자처하는데, 陰이 성대한 가운데 陽이 희미한 형국을 지나 말살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수당 역시 당대 암울한 현실을 陰이 성대한 가운데 陽이 희미한 형국으로 인식한다.

1904년 의당은 華陽洞에서 講會를 베풀고, 존화양이에 입각하여 화양

25) 박세화, 『毅堂集』 권1, 「時事歎」.

26) 李南珪, 『修堂遺集』 책3, 「請討賊疏」, “且惟念中州陸沈, 萬國同俗, 惟我東以檀箕舊邦, 服孔孟遺教, 保有衣冠文物, 僅如衆陰中微陽, 而乃抹殺之如此. 嗚乎, 豈其天也? 豈其天也?”

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斯道는 천지간에 否泰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否가 지극하다. 비록 否가 지극하더라도 道가 망했다고 말할 수 없다. 萬生이 斯道를 涵育하니, 비록 妖怪와 鬼魅가 끝내 소멸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 아아, 斯道가 망하겠는가? 綱常은 吾道의 命脈이고, 華陽은 吾道의 本地이다. 무릇 華陽은 바로 두 황제(神宗·毅宗)가 오르내린 땅이고, 文正夫子(宋時烈)가 학문을 하던 곳이니, 이른바 命脈과 本地는 이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이곳에서 道를 강론하니 어찌 命脈과 本地가 감응하여 교화에 참여하지 않겠는가? 아아, 華夏는 夷狄이 될 수 없고 사람은 禽獸가 될 수 없다.²⁷⁾

화양동은 尤庵 宋時烈(1607~1689)이 병자호란 이후 은거하면서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한 곳이자, 명나라의 毅宗의 ‘非禮不動’ 필적과 ‘大明天地崇禎日月’을 암벽에 새겨 尊明大義의 의식을 고취한 곳이다. 바로 華陽書院과 萬東廟가 대표적인데, 화양서원은 송시열의 신원 회복과 제향을 목적으로 노론계 관료와 유림들이 화양동에 건립했던 서원이고, 만동묘는 명나라 神宗과 毅宗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사당이다. 의당은 비록 암울한 상황에서도 道는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綱常은 春秋大義에 해당하는 尊華攘夷로 吾道의 命脈이고, 華陽은 만동묘와 화양서원이 있는 吾道의 本地이자 小中華의 상징적 공간이다. 따라서 화양동 강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華夏 문명은 夷狄 풍속과 다르듯이 華夏 사람은 夷狄의 禽獸가 될 수 없다. 이는 춘추대의를 계승하는 한편 맹자의 가르침을 부연한 내용이다. 의당은 小中華의 상징적 공간인 화양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낸다.²⁸⁾

27) 박세화, 『毅堂集』 권5, 「華陽講會日, 書諗諸君子」, “斯道之在天地, 未免有否泰於其間, 而今日則否之極矣. 雖否之極矣, 而不可曰道亡也. 萬生涵育, 斯道者, 雖妖怪鬼魅, 終亦殄滅, 它不得. 噫, 斯道而可亡耶? 綱常, 吾道之命脈也, 華陽, 吾道之本地也. 夫華陽泗二皇帝陟降之地也, 而文正夫子藏修之所也. 其所謂命脈本地者是已. 今吾輩得講道於是者, 豈不謂夫命脈本地之所感應以與化者耶? 嗚呼, 華不可爲夷也, 人不可爲獸也.”

1905년 9월 의당은 의병을 도모하려다 붙잡혀 7개월간 구속되었다가 1906년 4월에 풀려난다. 甲午更張 이후 일본은 국정을 약탈하고 威福을 멋대로 행사했는데, 이 무렵에는 州郡을 합치고 聖廟를 毀撤하며 나라를 병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나라를 병합하고 聖廟를 훼손한다면 나라와 道가 모두 망하는 것이다. 선비로서 어찌 잠자고 앉아서 보고만 있겠는가?”라고 분연히 의병을 도모하려고 계획한다. 이후 병으로 의병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사실이 누설되어 옥고를 겪는다.²⁹⁾ “간곡한 성현의 가르침은 警策과 어긋나고, 날로 고질병 더해져 世情을 거스르네.[聖訓丁寧乖警策, 日添痼疾世情違.]”³⁰⁾라는 내용은 당시 심정을 표현한 대목으로 읽힌다. 의당은 성현의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하는 학자라서 남다른 글재주도 없고, 고질병으로 의병투쟁에도 참여할 수 없는 신세를 자책한다.

그런데 1906년 4월 의당이 풀려나자, 도리어 감옥에서 죽지 않았다고 비방하는 말이 들끓는다. 윤응선은 적극적으로 의당을 변호하여, 丙子胡亂 때 主戰論을 주장하다가 瀋陽에 압송되어 6년간 고초를 겪었던 淸陰 金尙憲(1570~1652)을 거론하며 말세의 현상이라 비판한다.³¹⁾ 그러나 이

28) 상동, 「華陽講會日記」, “大明屋社, 天下無主, 三百年來, 腥羶世界. 獨於此一區華陽, 獲見大明皇帝遺事, 煌煌赫赫, 日月光耀, 可見周禮在魯之明證, 億萬年而不壞也.”

29) 윤응선, 『毅堂集附錄』 권2, 「年譜」, “[乙巳(1905)] …(中略)… 九月被執於聞慶虜, 轉至漢城, 見拘. 虜自甲午以來, 攘奪國政, 專行威福. 至是, 乃欲合州郡毀聖廟, 而爲合邦之計. 先生聞之大慟曰: ‘合邦而毀聖廟, 則國與道俱亡. 爲吾儒者, 安忍坐視?’ 遂入聞慶山中, 方謀舉義, 寢食不寧, 而眩病大作, 不可以省事, 因罷歸調理. 未幾, 爲賊邊人所偵, 囑聞慶兵站, 來而執之.” : 「行狀」. “時虜勢益猖, 專奪國政, 有毀聖廟吞邦國之說, 物論煽動. 先生聞之大慟曰: ‘聖廟毀矣, 則吾道永絕. 誦法孔子者, 安忍坐視以保軀命耶?’ 遂入聞慶山中, 將謀舉義, 措劃未成, 而眩病大作. 時先生年七十二, 自度不能視事, 仍罷歸. 未幾, 事泄於彼, 爲聞慶賊所執, 轉至漢城夷獄, 歷七箇月而拘.” : 「墓碣銘」. “乙巳, 內賊外夷, 盜竊國政, 有毀聖廟吞邦國之說. 先生曰: ‘聖廟毀宗國亡, 則吾道永絕. 誦法孔子者, 安忍坐視?’ 入聞慶山中, 將謀舉義, 措劃未成, 事泄被拘, 遂有夷狴七湖之辱.”

30) 박세화, 『毅堂集』 권1, 「次崔就伯見贈韻」.

31) 윤응선, 『毅堂集附錄』 권2, 「年譜」, “[丙午(1906)] …(中略)… 自是, 毀先生者, 以爲不死於彼中, 衆口譁然. 噫, 惡足以知之哉? 如淸陰之瀋陽六年, 不屈生還, 而

사건을 계기로 의당의 處義觀에 상당수 의심의 눈길을 보낸 듯하다. 일찍이 공자의 ‘言忠信行篤敬’³²⁾을 항상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의당의 입장에서 억울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³³⁾

의당은 도탄에 빠지고 어둡고 답답한 상황에서 공자와 같은 성인의 출현을 학수고대한다.

時事何足說	時事を 어찌 말하라?
陷溺轉質質	도탄에 빠져 ³⁴⁾ 더욱 어둡네.
強弱是計較	나라의 強弱만 논쟁하니
邪正豈不謬	邪說과 正學 어찌 잘못되지 않으랴?
…(中略)…	
宇內方純坤	세상이 바야흐로 純坤이 되니
循循執善誘	차근차근 누가 이끌어주겠는가? ³⁵⁾
抱經長悲歌	경서를 끌어안고 길이 슬피 노래하니
巖穴風雨搆	巖穴에 비바람 몰아치네. ³⁶⁾

세상일 어찌 말하라? 이 한마디는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백성과 어둡고 답답한 세상에 대한 탄식이다. 더욱이 세상은 弱肉強食·適者生存 같은 말단을 논쟁할 뿐, 邪說이 正學을 해치는 근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의당은 막연히 세상이 바뀌리라는 희망에서 한발 나아가 성인이 출현해서 혼란한 세상을 이끌어줄 것을 염원한다. 경서를 끌어안고 하늘

未聞有非之者，亦可見衰世好謗之一端也。”

- 32) 『論語』, 「衛靈公」, “子張問行,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 行乎哉? 立則見其參於前也, 在輿則見其倚於衡也. 夫然後行. 子張書諸紳.”
- 33) 박세화, 『毅堂集』 권5, 「書紳箴」, “忠否斯妄, 信離是虛, 既妄既虛, 言敢肆諸? 不篤則薄, 不敬則傲, 以傲以薄, 于疇不忤. 夫子六言, 子張書之, 我莫斯適, 嗚呼曷依?”
- 34) 『孟子』, 「梁惠王上」, “彼陷溺其民, 王往而征之, 夫誰與王敵.”
- 35) 『論語』, 「子罕」, “夫子循循然善誘人.”
- 36) 박세화, 『毅堂集』 권1, 「敬次尤翁次後雲煥章菴七十一韻」.

에 울부짖으며 호소하지만, 밖에는 비바람만 거세게 몰아친다. 미래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도 이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듯 더욱 험난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1910년 7월 27일 의당은 일본이 나라를 합병하고 太皇帝를 李太王으로 강등하고 隆熙皇帝를 李王으로 강등한 소식을 듣고, 30일에 諭告文字를 접하고 하루 종일 통곡한다.³⁷⁾ 이튿날, 家廟를 참배하고 “지금 道가 끊어지고 나라가 망했으니 저는 장차 무엇으로 의리를 삼겠습니까?”라고 울분에 찬 탄식을 쏟아낸다.³⁸⁾

이후 의당은 道脈이 영원히 끊어져 하루라도 구차하게 살 수 없어 自靖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자, 문인 朴海俊은 삭발의 화가 멀지 않을 듯하다며 만류한다. 의당은 “大綱이 한번 무너지면 많은 사람의 눈이 함께 뒤집히는 법이다. 綱常은 吾道의 命脈이고 華夏는 吾道의 本地이다. 지금 영원히 끊어졌으니 사람이 하루라도 도를 떠날 수 있겠는가? 도를 떠나서 사는 것은 살지 않는 것만 못하다.”며 의리에 입각하여 自靖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³⁹⁾ 大綱은 萬古綱常을 의미하는 尊華攘夷로,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눈이 뒤집혀 禽獸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綱常과 華夏가 끊어진 세상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는 행위는 의리에 입각하여 自靖하는 것만 못하다.

의당은 자정을 결심하고 음식을 거부하며 곡기를 끊은 이후로도 문인과의 講論을 지속한다. 심지어 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독을 마시고

-
- 37) 율응선, 『穀堂集附錄』 권2, 「年譜」, “[庚戌(1910)] …(中略)… 七月開國變罔極. 二十七日戊辰, 本洞里長來言, 今聞京報, 則日虜合并我邦, 降太皇帝爲李太王, 降隆熙皇帝爲李王云云. 三十日辛未, 所謂諭告文字, 果到本里. 先生聞之, 竟日號慟.”
- 38) 상동, “八月朔日壬申, 先生理巾帶, 入家廟, 參拜訖, 乃告曰: ‘今道絕國亡, 不肖將何以爲義?’ 因嗚咽哽塞, 出齋, 號慟不已.”
- 39) 상동, “癸酉, 門人朴海俊來謁, 先生曰: ‘道脉永絕, 不可一日苟生, 吾欲溘然而不知也.’ 海俊曰: ‘削禍似亦不遠, 伊時處義, 恐未晚.’ 先生曰: ‘不然. 大綱一墜, 萬目俱倒. 綱常, 吾道之命脈也, 華夏, 吾道之本地也. 今焉永絕, 人可以一日離道乎? 離道而生, 不如無生也.’”

자결을 시도하지만 끝내 실패하고 만다. 그럼에도 의당은 자정이 오랑
 케 세상에서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더욱 의미 있는 선택임을 강조한
 다.⁴⁰⁾ 그는 도가 끊어지고 나라가 망한 지금은 구차하게 목숨을 보전하
 는 자체가 더욱 견디기 힘든 일이라, 의리에 입각하여 자결을 선택한 셈
 이다.

따라서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라는 문인
 의 질문에 의당은 “내가 비록 죽더라도 기운이 있으면 서로 호응할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 서로 통할 것인데, 어찌 생사의 길이 서로 다름을
 한탄하느냐?”라고 의연하게 대답한다.⁴¹⁾ 아울러 의당은 七絶과 五古 二
 首를 써서 自靖의 뜻을 피력하고, ‘이 몸이 죽어서 본원으로 돌아감에
 어찌 크게 기쁘지 않겠는가? 다만 제자들이 학업을 성취하는 걸 보지
 못하는 게 한스럽다.’는 梅山 洪直弼(1776~1852)의 말로서 자신의 심정
 을 대변한다.⁴²⁾

의당은 곡기를 끊은 상황에서도 「畫像自警」을 한번 암송하고 평상시
 처럼 강론을 계속한다. 당시 강론의 내용은 ‘仁’으로 요약된다. 殷나라의
 微子·箕子·比干은 처지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仁을 실천한 인물이며,⁴³⁾
 죽는 일은 참으로 어렵지만 명예를 위해서 죽는 행위는 仁이 아님을 강
 조한다.⁴⁴⁾ ‘殺身成仁’⁴⁵⁾에 대한 의당의 분명한 입장으로, 너나없이 ‘殺身

40) 상동, “丁丑, 林基貞侍坐質問疑義, 先生講論如流. 少間, 基貞出, 傍無人, 先生飲
 毒要自盡, 忽嘔吐不省覺, 至夜久稍定. 先生復起坐曰: ‘吾欲速化而不得, 豈其有待
 耶?’ 衡教涕泣, 請以米飲, 先生曰: ‘吾之所欲, 有甚於生者, 爾勿復言.’”

41) 상동, “戊寅, 門人金思述進曰: ‘先生逝矣, 則小生何依?’ 先生笑曰: ‘曠百世而相
 通者心也, 跨百里而相應者氣也. 吾雖死矣, 氣必留焉, 有氣則必相應, 有心則必相
 通, 何恨幽明之相殊乎?’”

42) 상동, “己卯, 膺善將告歸, 痛哭不忍遽訣, 先生命進筆硯, 寫七絶五古二首以與之.
 …(中略)… 因曰: ‘梅翁嘗言乘化歸盡, 豈不是大好夫活, 但未及見賢輩學業造就,
 是爲恨也, 此實先獲語也.’”

43) 『論語』, 『微子』, “微子去之, 箕子爲之奴, 比干諫而死, 孔子曰, 殷有三仁焉.”

44) 윤응선, 『毅堂集附錄』 권2, 「年譜」, “庚辰, 先生櫛髮, 命進盥, 整理冠巾訖, 誦畫
 像自警一遍, 講論如常時. 其略曰: ‘孔門教人, 必以仁學, 而去仁惡乎學? 殷有三
 仁, 所處不同, 而同歸于仁. 但求見其本心之全而已.’ 又曰: ‘當理而無私心, 乃所

成仁'의 명분을 쫓아서 殉國하는 행태를 비판한 대목이다.

「畫像自警」은 초상화에 붙여 스스로를 경계한 글로, 「毅堂銘」과 더불어 의당의 생활 지침과 철학을 담고 있다.

화목하고 기뻐함⁴⁶⁾은 마땅히 네가 얻은 것이요, 초연히 자족함⁴⁷⁾은 마땅히 네가 스스로 즐기는 것이네. 어찌하여 초상화에서 기뻐하지 않는 기색이 있는가?⁴⁸⁾ 역량은 當世에 훌륭한 일을 하기에 부족하고, 文章은 오늘날을 살피기에 도 부족하네. 혹여 무슨 까닭이 있는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 감히 말하라? 知가 미치고 仁으로 지킴⁴⁹⁾은 바라는 바라서 사사로이 떠날 수 없네. 살아서 순응하고 죽어서 편안함⁵⁰⁾은 하려는 바지만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네.⁵¹⁾ 과연 그렇구나. 마땅히 너는 마음에 두지 않아 木石과 살고 鹿豕와 노니네.⁵²⁾ 또한 기뻐하고 자족하며 네가 미워하는 걸 다하지 않는가?⁵³⁾

윤현이 1898년 가을에 초상화를 그렸는데, 의당은 당시 65세의 초췌한 모습이다. 화목하고 기뻐하며 초연히 자족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

以爲仁也。死固難矣，而或有爲名而死，則亦非仁也。”

- 45) 『論語』, 「衛靈公」, “子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 46) 『論語』, 「子路」, “子曰, 切切偲偲, 怡怡如也, 可謂士矣. 朋友切切偲偲, 兄弟怡怡.”
- 47) 『孟子』, 「盡心上」, “人知之, 亦囂囂, 人不知, 亦囂囂.”
- 48) 『孟子』, 「公孫丑下」, “孟子去齊, 充虞路問曰, 夫子若有不豫色然.”
- 49) 『論語』, 「衛靈公」, “子曰, 知及之, 仁不能守之, 雖得之必失之. 知及之, 仁能守之, 不莊以涖之, 則民不敬. 知及之仁能守之, 莊以涖之, 動之以禮, 未善也.”
- 50) 張載, 「西銘」, “存吾順事歿以寧.”
- 51) 『論語』, 「衛靈公」, “子曰, 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
- 52) 『孟子』, 「盡心上」, “舜之居深山之中, 與木石居, 與鹿豕遊, 其所以異於深山之野人者幾希.”
- 53) 박세화, 『毅堂集』 권5, 「書畫像自警[戊戌秋, 友人尹▲(金+憲), 爲余寫真. 時年六十五, 容髮凋悴如此. 顧餘景幾何? 聊書此以自警]」, “怡怡然宜乎爾有得, 囂囂然宜乎爾自樂. 胡乃於七分貌, 若有不豫之色? 力量不足以有爲於當世, 斯文不足以有相於今日. 或者有是之故歟? 非然也焉敢曰乎? 知及仁守是求矣, 而私不有以去之. 存順歿寧斯欲矣, 而名不得而稱焉. 有是哉宜乎爾置之, 木石之居鹿豕之遊. 顧不亦怡怡囂囂, 以終爾之可惜.”

빠하지 않는 기색이다. 이유는 역량과 문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바로 ‘知及仁守’와 ‘存順歿寧’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의당은 타고난 역량과 문장을 세상에 발휘하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성현의 가르침을 묵묵히 받들고 따르는 학자로서의 삶을 갈망한다. 이는 의리에 입각하여 自靖을 결심한 이후로도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강학에 전념하는 학자로서의 삶을 반성하고 경계한 내용이다.

또한 그는 당시 상당수 유림이 주자가 말한 ‘國可亡也, 道不可亡也.’을 신봉하던 상황에서 ‘道未嘗亡’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 ‘道未嘗亡’은 天地의 道로 人道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지금은 仁義禮智와 綱常大倫, 華夏正統에 해당하는 人道는 보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는 “사람이 도를 떠나서 살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도를 떠나서 산다면 금수와 진배없다고 단언한다. 아울러 尤庵의 輓詞⁵⁴⁾를 대신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즐거움도 없고 지루하기 그지없지만 의리에 입각하여 자정을 결심한 초연함이 묻어난다.⁵⁵⁾ 또한 ‘禮義朝鮮’ 4글자를 쓰고서 “우리 당당한 바른 나라가 금수가 되어 망하였으니, 아아 차마 말할 수 없다.”고 탄식한다.⁵⁶⁾ 小中華를 자처하며 道脈을 계승하던 처지에서 하루아침에 오랑캐 세상으로 전락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더욱이 오랑캐 아니 금수로 여기던 일본에게 국

-
- 54) 宋時烈, 『宋子大全』 권2, 「朴季直挽」, “八旬於世太支離, 子已長辭我厭之. 可笑人情猶未忘, 篋中還泣舊題詩.”
- 55) 윤응선, 『毅堂集附錄』 권2, 「年譜」, “辛巳, 賓友門人, 會者甚衆. 先生命扶起坐曰: ‘朱子易簣前三日, 顧門弟子曰, 天地所以生萬物, 聖人所以應萬事, 只是一直而已. 朱子受命時, 亦以是詔門人曰, 要與同志之士, 共守而勿失焉. 此朱宋以來, 相傳旨訣也. 吾輩之可法者, 不其在此乎?’ 少雲韓星履進曰: ‘先生今日處義, 不在於國之存亡, 而全在於道之存亡. 或者謂道未嘗亡也, 其說何如?’ 先生曰: ‘所謂道未嘗亡者, 指天地之道而言也, 不問治亂, 晝夜寒暑, 生長收藏, 固自若矣, 而在人之道, 則仁義禮智, 綱常大倫, 華夏正統, 無復存焉, 謂之不亡也得乎? 人可離道而生乎? 離道而生, 則禽獸而已, 吾不忍爲也.’ 韓曰: ‘先生之義, 則萬理俱明, 一疵不存而後生, 當何以處之?’ 先生曰: ‘是各有其義, 豈可一例論也? 吾今年八耄, 不樂斯世久矣. 尤翁挽人詞有曰, 人間八十太支離, 子已長逝我厭之, 吾亦云爾也.’”
- 56) 상동, “壬午, …(中略)… 因命進筆硯, 展大幅紙, 書禮義朝鮮四大字, 失聲號慟曰: ‘以我堂堂正邦, 爲犬羊而亡, 嗚呼, 不忍言也.’”

권마저 송두리째 빼앗긴 참담함은 표현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禮義朝鮮’은 道를 의미하는 ‘禮義’와 나라에 해당하는 ‘朝鮮’을 합성한 말로, 하루빨리 도와 나라를 회복해야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의당은 於陵 陳仲子의 말을 떠올리며 곡기를 끊고 餓死를 결심한 고심을 드러내고, 崔翔龍이 제기한 ‘傷勇’⁵⁷⁾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라는 하루라도 임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임금은 누구인가? 사람이 한 순간도 道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지금 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三代 이전에는 道가 위에 있었고, 三代 이후에는 道가 아래에 있었으며, 명나라 말기에는 道가 밖에 있어 오직 우리나라가 周禮를 담당하여 위에서 실행하고 아래에서 본받아 거의 三代에 부끄러움이 없어 또한 道가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또 아래로 내려와 우리들 약간의 사람에게 달려있을 뿐이다. 우리들이 도를 떠나서 살 수 있겠는가?⁵⁸⁾

‘傷勇’은 용맹을 손상한다는 뜻으로 지나친 죽음을 의미한다. 최상룡은 자정을 선택한 의당을 ‘傷勇’이 아닐까 의심한다. 이는 ‘以身殉道’를 경계한 내용과 관련이 깊고, 1906년 감옥에서 죽지 않았다는 비방과도 연결된다. 의당은 나라와 도가 모두 망한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구차하게 사는 걸 거부한다. 더욱이 조선은 小中華를 자처하고 道脈을 계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선도 망하고 도조차 끊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그가 선택한 자정은 지나친 죽음인 ‘傷勇’일 수 없다. 윤응선이 의당을 시대의 儒宗으로 春秋大義에 입각하여 殉國한 사실을 추앙한 것은 그 반증이라 하겠다.⁵⁹⁾

57) 『孟子』, 「離婁下」, “可以取, 可以無取, 取, 傷廉. 可以與, 可以無與, 與, 傷惠. 可以死, 可以無死, 死傷勇.”

58) 윤응선, 『毅堂集附錄』 권2, 「年譜」, “丁亥, 先生曰: ‘人之餓死, 何其支離也! 於陵仲子所謂三日不食, 耳無聞目無見者, 不足信也.’ 崔翔龍進曰: ‘先生今日之義, 固非後生所敢議然, 恐無傷勇否?’ 先生默然良久曰: ‘國不可一日無君, 今所君者誰歟? 人不可一瞬離道, 今謂道存而得乎? 三代以前, 道在於上, 三代以後, 道在於下, 至于明末, 道在於外, 則惟我國獨掌周禮, 上行下效, 庶無媿於三代, 則亦可謂道在於上, 而至今日則又下, 而在吾輩若干人而已. 吾輩其可離道而生乎?’”

III. 毅堂의 自靖과 絶命詩

조선은 1876년 개항 이후 근대로 진입하면서 험난한 여정을 겪는다. 더욱이 1895년 乙未事變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선포되자, 척사위정과 존화양이로 무장하여 쇄국을 주장하던 척사위정파는 유림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의병 봉기로 맞선다. 또한 乙巳勒約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丁未七條約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상실하며 庚戌國恥로 국권을 송두리째 잃을 때까지 대규모의 의병이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한다.

나라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처하자, 상당수의 지식인은 自靖을 선택하고 殉國하기에 이른다. 특히 乙巳勒約으로 외교권을 상실하고 통감부가 설치된 상황에서 자정의 길을 선택한 인물로는 閔泳煥趙秉世洪萬植李相哲宋秉璿 등이 있다. 또한 이후로도 자정을 선택하거나 일제에게 죽음을 당한 경우는 金奉學崔益鉉李南珪李儁鄭在洪 등이 있다.⁶⁰⁾ 특히 민영환은 『대한매일신보』에 1906년 7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거의 매일 추모하는 내용이 게재될 정도였다. 그가 할복 자결한 8개월 뒤, 피 묻은 옷과 칼을 보관해 둔 마루에서 푸른 대나무가 솟아나고, 1906년 7월 5일 『대한매일신보』는 민영환의 피를 먹고 자란 대나무를 ‘血竹’이라 칭송한 사실과 관련이 깊다. 최익현도 의병투쟁의 선봉에 섰다가 구속되어 對馬島로 유배되고, 일제가 주는 음식을 거부하다가 끝내 풍토병에 걸려 죽고 만다. 그런데 일제의 음식을 거부하다 굶어 죽었다는 애국적인 행동으로 알려지면서, 민영환과 버금갈 정도로 추모의 시가 답지

59) 상동, 「墓碣銘」, “猗歟英姿, 間氣所鍾. 祖述考亭, 爲世儒宗. 昏衢炳燭, 大冬寒松. 一部春秋, 取義從容. 道不可離, 而誰適從?”

60) 이희목, 「愛國啓蒙期の 漢詩」, 『한국한문학회연구』 제15집, 한국한문학회, 1992 참조.

한다.

또한 일본에 항거하다 자정을 선택하고 순국한 인물들의 絶命詩도 상당수 전한다. 대부분 의병투쟁으로 구속되고 죽음의 문턱을 앞두고 결연한 의지를 피력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白樂寬·鄭煥直·李康季·許蔦·李殷瓚·李麟榮·沈南一·李晚燾·全海山·金根培·金舜欽·吳剛杓·張泰秀·金道鉉·崔世允·柳秉憲·朴尙鎮·趙泳善·趙愚植·金衡植 등의 절명시가 전한다.⁶¹⁾

당시 自靖하는 방법은 민영환처럼 활복 자결하거나 정재홍처럼 권총으로 자결하거나 황현처럼 독을 마시고 자결하거나 김도현처럼 바다에 투신하여 자결하거나 최익현처럼 단식하여 자결하는 등 다양하다.

의당은 청천벽력 같은 경술국치를 접하고 자정을 결심한다. 그는 곡기를 끊고 단식한지 23일이 지나서 순국하고 만다. 순국 20일 전, 그는 윤응선에게 절명시로 七言絶句 1수와 五言古詩 1수를 남긴다. 따라서 의당이 자정에 이르는 과정과 절명시를 살펴보면, 다른 절명시와의 변별점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경술국치에 통분해 다량의 아편을 마시고 자결한 梅泉 黃玟을 살펴본다. 그는 1910년 8월 일본에 나라가 병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몹시 비통해하며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절명시 4수를 쓰고 자제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다.

내가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다만 국가에서 선비를 길러온 지 오백년이 되었는데, 나라가 망한 날을 당해 한 사람도 國難에 죽는 자가 없다면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위로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에 읽은 글을 저버리지 않고 영원히 잠들어 버린다면 참으로 통쾌함을 깨달을 것이니, 너희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⁶²⁾

61) 박동욱, 「絶命詩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참조.

62) 金澤榮, 『梅泉集』, 「本傳」, “吾無可死之義. 但國家養士五百年, 國亡之日, 無一人死難者, 寧不痛哉? 吾上不負皇天秉彝之懿, 下不負平日所讀之書, 冥然長寢, 良覺痛快, 汝曹勿過悲.”

매천은 당시 문명이 높던 姜瑋·李建昌·金澤榮 등과 깊이 교류하지만, 시골 출신이라 평생 벼슬길에 오른 적이 없다. 애당초 매천은 나라와 임금에게 충성의 의리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그는 타고난 양심과 책 읽는 학자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어 자결을 선택한다. 매천의 마지막 유언은 절명시에 그대로 투영된다.

鳥獸哀鳴海岳嘯	조수도 슬피 울고 산하도 쩡그리니
槿花世界已沉淪	무궁화 세상은 이미 망해 버렸네.
秋燈掩卷懷千古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회고해 보니
難作人間識字人	인간 세상 ‘글 아는 사람’ 되기가 어렵네. ⁶³⁾

조수도 울고 산하도 쩡그릴 정도로 나라를 잃은 아픔은 형언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 매천은 ‘글 아는 사람[識字人]’, 바로 당대의 지식인(학자)의 도리를 생각하며 고뇌한다. 또한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선택한 자결은 근대적인 지식인의 대응과도 다르다. 매천은 전통적인 사상과 문화를 바탕으로 지식인(학자)의 도리와 책무를 자각하고 자결을 결심한 셈이다. 이것야말로 ‘아래로는 평소에 읽은 글을 저버리지 않는’ 매천의 마지막 선택이다.

曾無支厦半椽功	짧은 서까래만큼도 지탱한 공 없었으니
只是成仁不是忠	殺身成仁 그뿐이지 충성은 아니네.
止竟僅能追尹穀	결국 겨우 尹穀이나 따르고 마는 것을
當時愧不躡陳東	그때 陳東처럼 못했던 게 부끄럽네. ⁶⁴⁾

평생 벼슬길에 오르지 않아 나라에는 작은 공적도 없다. 그러니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의 의리는 없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仁을 이루는’ 志士仁人の 자세를 견지한다. 이는 ‘위로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양심을

63) 黃玿, 『梅泉集』 권5, 「絶命詩[四首] 三」.

64) 黃玿, 『梅泉集』 권5, 「絶命詩[四首] 四」.

저버리지 않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尹穀과 陳東을 떠올리면 자신의 과거와 지금이 그리 떼뺏하지 못하다. 과거에는 진동처럼 적극적으로 나라의 잘잘못을 말하지 못한 채, 지금은 윤곡처럼 자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매천은 자결을 忠이 아니라 殺身成仁으로 규정한다.

다음은 항일 의병장으로 蹈海殉國의 길을 택한 碧山 金道鉉을 살펴본다. 그는 1914년 11월 경북 寧海의 觀魚臺에서 바다로 투신하여 순국한다. 바다에 투신하기 직전에 자제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을 남긴다.

부군은 店舍에 들어가 잠시 쉬고서 觀魚臺 아래에 있는 汕水巖에 올라 천 길 바닷물이 천지 사이에 가득 차서 넘실대는 것을 보았다. 얼굴 가득 기뻐하고 환한 얼굴빛을 띠어 조금도 慷慨한 모습이 없었다. 배회하며 멀리 바라보더니 좌우를 둘러보고 탄식하였다. “이런 좋은 물건을 한 구석에 내버려두고 어찌 犬羊에게 구차하게 살며 목숨을 맡기는데 골몰하라?” …(中略)… 부군은 말하였다. “내가 한번 바다에 들어간 뒤로는 맹세컨대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니, 절대 시신을 찾지 말라. 차라리 바닷속에 빠져 죽을지언정 어찌 원수 같은 오랑캐의 땅에서 臣僕이 되겠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진심으로 원통하고 분한 것이다. 너희들은 매우 절박한 마음이 있더라도 大義의 갈림길은 어찌할 수 없다. 너희들이 만약 내가 죽었다고 내 명령을 어긴다면 내 자손이 아니다.”⁶⁵⁾

일제 치하의 삶은 犬羊 같은 오랑캐에게 구차하게 살며 목숨을 맡기는 행위와 다름없다. 따라서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다에 투신하여 자결하는 것이 도리어 유일한 선택인 셈이다. 심지어 원수 같은 오랑캐의 땅에서 臣僕이 되느니 차라리 바닷속에 빠져 시신마저 그대로

65) 金道鉉, 『碧山集』 권2, 「蹈海日記」, “府君入定小憩後, 登觀魚臺下汕水巖上, 見千丈海水, 浩浩洋洋, 自若於天地之間. 喜色滿顏, 和氣揚揚, 無一分慷慨之狀, 徘徊瞻望, 顧左右而歎曰, 如許好物, 置之一邊, 奈何汨汨偷生委命於犬羊? …(中略)… 府君曰, 吾一入此海後, 誓不出外, 切勿求屍. 寧沉海濱, 豈可爲仇虜土中之臣僕乎? 此乃吾實心所痛憤痛憤. 汝輩雖有痛迫之情, 大義關頭, 無可奈何. 汝輩若以吾爲死而違吾命, 非吾子孫.”

가라앉기를 바란다. 벽산은 죽은 시신조차 절대 찾지 말라고 거듭 당부한다. 당시 벽산의 심정과 마지막 유언은 절명시에도 드러난다.

我生五百末	조선 오백년 말에 태어나
赤血滿空腸	붉은 피는 가슴에 가득하네.
中間十九載	그 사이 19년 동안 헤매다 보니
鬚髮老秋霜	노년에 머리털은 희어졌네.
國亡漏未已	나라가 망함에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더니
親沒心更傷	부모님마저 가시니 마음 더욱 슬프네.
獨立故山碧	홀로 푸른 옛 산에 서니
百計無一方	아무리 헤아려도 방책이 없네.
萬里欲觀海	만 리 달려 바다를 보고자 했더니
七日當復陽	7일은 陽을 회복하는 동지라네.
白白千丈水	회고 흰 천 길 물속이
足吾一身藏	내 한 몸 감출만하네. ⁶⁶⁾

조선 오백년의 혼란한 시기에 태어나 백척간두에 처한 나라를 보니 가슴에는 붉은 피가 끓어오른다. 1895년 乙未事變과 斷髮令에 의병을 봉기하여 저항한지도 어느덧 19년의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다. 나라 잃은 설움에도 부모가 살아있어 자결을 결행하지 못하고, 지금은 부모마저 없으니 더없이 슬프다. 벽산은 나라가 멸망하고 부모도 돌아가신 상황에서 끝없이 절망하고 좌절한다. 또한 19년간 끊임없이 의병투쟁으로 일본에 저항했지만, 끝내 나라를 잃고 의병마저 뿔뿔이 흩어진 지금은 더욱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벽산은 魯仲連의 말처럼 바다로 투신하여 순국하기로 결심한다.

이와는 달리, 의당은 곡기를 끊어 단식하며 자결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단식을 통한 자결은 지속적인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독을 마시고 자결하려다 실패하고 만다. 또한 단

66) 김도현, 『碧山集』 권1, 「到大津山水巖[初六日]」.

식 11일째에는 於陵 陳仲子의 말⁶⁷⁾을 떠올리며 곡기를 끊고 餓死를 결심한 고심을 드러낸다.⁶⁸⁾ 심지어 단식으로 火氣가 치솟아 팔다리가 차가워도 講論을 멈추지 않는다.⁶⁹⁾ 이렇게 의당은 곡기를 끊고 단식하며 23일간 고통을 감내하고 순국한다. 그가 자정에 이르는 과정은 앞서 살펴본 「年譜」·「行狀」·「墓碣銘」에 상세하다. 다음은 「墓碣銘」의 내용으로 의당이 자정을 결심한 계기와 운명한 날의 마지막 유언이다.

경술년 가을, 선생은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통곡하였다. “나라가 망하면 道와 華夏가 모두 망하는 것이다. 힘으로 토벌하지 못한다면, 구차하게 살아서 원수 같은 오랑캐의 백성이 되느니 차라리 죽어 華夏의 귀신이 되는 것이 낫다.” 마침내 의리로 穀氣를 끊었다. …(中略)… 마침내 운명한 날에 여러 유생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綱常은 吾道の 命脈이고, 華夏는 吾道の 本地이다. 이렇게 영원히 끊어진다면 사람이 하루라도 道를 떠날 수 있겠는가? 春秋의 법도는 한 가지 일이라도 오랑캐의 道가 있다면 오랑캐로 여기니, 지금 이후로 내가 모면함을 알겠다.”⁷⁰⁾

주자의 ‘國可亡也, 道不可亡也.’을 신봉하던 다른 유림과는 달리, 의당은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성통곡한다. 나라가 망하면 道와 華夏도 모두 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실은 더욱 암울하고 참담하다. 그는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자정을 결심한다. 단식 23일째 되는 날,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

67) 『孟子』, 「滕文公下」, “陳仲子豈不誠廉士哉! 居於陵, 三日不食, 耳無聞, 目無見也. 井上有李, 螻食實者過半矣, 匍匐往將食之, 三咽然後, 耳有聞, 目有見.”

68) 윤응선, 『毅堂集附錄』 권2, 「年譜」, “丁亥, 先生曰: ‘人之餓死, 何其支離也! 於陵仲子所謂三日不食, 耳無聞目無見者, 不足信也.’”

69) 상동, “戊子, 先生火氣上攻, 肢體寒冷, 而猶講說不已曰: ‘一息尚存, 志猶在也.’”

70) 상동, 「墓碣銘」, “庚戌秋, 聞國破之報, 先生大慟曰: ‘國亡則道與華而俱亡. 力既不能討復, 則與其苟生而爲讎夷之民, 無寧溘然而爲華夏之鬼乎!’ 遂引義絕粒. …(中略)… 乃於治命之日, 顧謂諸生曰: ‘綱常, 吾道之命脈也, 華夏, 吾道之本地也. 此而永絕焉, 則人可以一日離道乎? 春秋之法, 一事有夷道則夷之, 今而後, 吾知免矣.’”

언은 處義觀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1904년 화양동에 강회에서 피력한 내용의 연장선이다. 화양동은 화양서원과 만동묘가 있는 小中華의 상징적 공간으로 ‘華陽’는 바로 ‘華夏’를 의미한다. 이제는 나라도 망하고 道와 華夏까지 망하니, 華夏는 夷狄으로 변하고 사람도 禽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식하여 자정하는 극단적인 선택도 주저하지 않는다. 더욱이 자정을 결심하고 남긴 절명시 2수에는 의당의 현실 인식과 처의관이 고스란히 전한다.

먼저 五言古詩를 살펴본다.

道亡吾奈何	도가 망했으니 내가 어찌하랴?
仰天一慟哭	하늘을 우리러 한바탕 통곡하네.
自靖獻聖賢	自靖하여 성현에게 바치니
嗚呼君莫惑	아아, 그대는 의심하지 말라. ⁷¹⁾

도가 망했으니 내 어찌하랴? 이 한마디에 끝없는 절망과 탄식이 묻어 난다. 아무리 하늘에 울부짖고 하소연한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도가 망했다’는 말은 나라가 망하여 道와 華夏가 끊어짐을 의미한다. 의당은 경술국치의 소식에 절망과 탄식을 금치 못하는데, 그 내용이 「行狀」에 상세하다.

경술 가을,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이 산중에 이르자, 선생은 울부짖으며 통곡하였다. “명나라가 멸망하고 천하에 주인이 없어, 우리 동방이 周禮를 맡아 碩果의 象을 담당하였다. 이제 나라가 망하면 道와 華夏도 모두 망하는 것이니, 내 어찌하랴? 구차하게 살아서 원수 같은 오랑캐의 백성이 되느니, 차라리 죽어 華夏의 귀신이 되는 게 낫다.”⁷²⁾

71) 박세화, 『毅堂集』 권1, 「自靖時絶筆」.

72) 윤용선, 『毅堂集附錄』 권2, 「行狀」, “庚戌秋, 國破之報至山中, 先生號慟曰: ‘皇明屋社, 天下無君, 而我東獨掌周禮, 以膺碩果之象. 今焉國亡則道與華而俱亡, 吾其奈何? 與其苟生而爲驩夷之民, 無寧溘然而爲華夏之鬼乎!’”

또한 의당은 자정을 결행하면서도 도리어 의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는 앞서 ‘以身殉道’를 경계한 내용과 1906년 출감 이후 받았던 비방 및 ‘殺身成仁’에 대한 견해와 관련이 깊다. 자신이 선택한 자정은 오직 칩사위정과 존화양이에 입각한 의리 때문이지, 결코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듯 의당의 처의관은 자정을 결심한 순간까지 전혀 변함이 없다.

다음은 七言絶句의 내용으로 小中華에 대한 자부심과 현실의 절망감이 드러난다.

白頭山色映蒼空	백두산 빛이 푸른 하늘에 비치니
華夏一區箕子東	華夏의 한 구역은 箕子의 동방이네.
霽月風光何處在	霽月風光은 어디에 있는가?
沒人氣祲太濛濛	사람을 파묻은 재앙 기운 너무도 어둡네. ⁷³⁾

의당의 小中華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은 각별하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箕子의 교화를 받들어 조선 오백년간 小中華로 일컬어졌다.⁷⁴⁾ 따라서 나라가 망하고 도가 끊어진 현실적 절망감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霽月風光을 찾을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다. 霽月風光은 암울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앞서 성인이 출현해서 혼란한 세상을 구원해줄 것을 염원한 내용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현실은 재앙 기운이 가득 차서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기다릴 뿐이다. 의당은 도처에서 ‘氣祲(재앙 기운)’을 언급할 정도로 시대를 암울하게 인식한다. 따라서 부채로 멀리 날려 보내기를 바라고,⁷⁵⁾ 신통

73) 박세화, 『毅堂集』 권1, 「自靖時絶筆」.

74) 상동, 「與諸生, 登月岳山, 賦詩, 以登泰山小天下分韻, 得登字」, “左海三千里, 箕聖遺化承. 矧我五百年, 郁郁中華稱.”

75) 박세화, 『毅堂集』 권5, 「扇銘」, “灑灑兮風之來, 吾得以醒顏神而爽襟氣, 拂拂兮風之去, 爾足以去氣祲而蕩暑瘴, 吾未見其風存乎扇, 吾未見其扇能生風, 徐而無疾而激兮, 吾見其有此氣逼塞天地中.”

한 약으로 제거하기를 염원한다.⁷⁶⁾ 이러한 실낱같은 희망도 사라지고 칠혹 같은 어둠이 찾아와 세상은 온통 오랑캐로 들끓는다. 그는 나라가 망하고 도가 끊어진 오랑캐가 날뛰고 세상을 뒤로한 채, 결연히 자정의 길을 선택한다.

일찍이 의당은 혼란한 세상을 등지고 은거를 바란 적도 있는데, 다음 작품에서 그 일단이 드러난다.

箕聖古封左海上	예로부터 箕子가 동방에 봉해졌으니
小中華者眞可謂	小中華라 참으로 일컬을 만하네.
列聖群賢五百載	여러 성현은 조선 오백년에
禮樂文物天下畏	예악문물을 천하가 두려워하네.
…(中略)…	
奈何今日橫諛邪	오늘날 諛邪 ⁷⁷⁾ 가 횡행함을 어찌하랴?
冥冥氛祲狂瀾沸	어두운 재앙 기운은 성난 물결처럼 들끓네.
…(中略)…	
木食澗飲抱遺經	열매 먹고 샘물 마시며 경서를 끌어안고
友鹿豕中韜衆卉	鹿豕를 벗하며 숲속에 숨네. ⁷⁸⁾

우리나라는 箕子 이후로 小中華를 자처하고, 조선 오백년간 여러 성현이 배출되어 예악문물로 명성을 드날린다. 더욱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한 이후로는 華夏의 예악과 문물을 계승하는 유일한 보루이다. 그런데 지금은 諛辭와 邪辭가 횡행하고 어두운 재앙 기운이 성난 파도처럼 들끓는다. 한마디로 척사위정과 존화양이가 무너지고 사라져 邪說이 판치고 夷狄이 날뛰는 세상이다. 의당은 草根木皮로 연명하고 짐승들과 뒤섞여 사는 은자의 삶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76) 박세화, 『毅堂集』 권1, 「謝金聖極饋藥」, “仁人施德普通神, 俾辟氛祲不染身. 更願擴充扶正學, 用除淫邪覺斯民.”

77) 『孟子』, 「公孫丑上」, “諛辭知其所蔽, 淫辭知其所陷, 邪辭知其所離, 遁辭知其所窮.”

78) 박세화, 『毅堂集』 권1, 「葦億山齋, 士友會講, 講罷賦詩, 以白鹿洞賦分韻, 得旣字」.

의 소박한 바람은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만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毅堂 朴世和의 處義觀과 絶命詩를 살펴보았다. 『毅堂集』은 의당이 생전에 두 차례나 산삭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정이 이루어진다.⁷⁹⁾ 다음 글은 文에 대한 의당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평생 저술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일찍이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하지만,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⁸⁰⁾ 文은 道를 실는 도구이니, 文이 있어도 道에 보탬이 없고 文이 없어도 道에 빠짐이 없다면 어찌 文을 쓰겠는가?”라고 하였다.⁸¹⁾

선생은 말하였다. “文은 道를 실는 도구이다. 도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비록 文이 있다한들 무슨 이로우미 있겠는가? 내가 일찍이 程頤가 『中庸解』를 썼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태워버린 생각이 있었지만, 또한 갑자기 결정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부득이함이 있어서였다.” 대개 선생은 저술에 뜻이 없어, 남은 것은 의리의 요점이다.⁸²⁾

의당은 전통적인 ‘文以載道’의 관점을 고수한다. 따라서 道를 갖추고 보탬이 있어야만 文이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한 저술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꺼린 것도 공자의 ‘述而不作’⁸³⁾을 계승한 측면이 있다. 아

79) 윤응선, 『毅堂集附錄』 권2, 「年譜」, “[丁未(1906)] …(中略)… 先生日復研精, 梳洗舊藁, 有新得, 則雖夜必命燭書之.”; “[庚戌(1910)] …(中略)… 夏復刪定舊稿. 先生取舊稿, 手自刪去, 存者無幾.”

80) 『論語』, 「憲問」, “有德者, 必有言, 有言者, 未必有德.”

81) 윤응선, 『毅堂集附錄』 권2, 「行狀」, “平生不喜著述, 嘗曰: ‘有德者, 必有言, 有言, 未必有德. 文者所以載道也, 有之無所補, 無之無所闕, 則奚以文爲也?’”

82) 윤응선, 『毅堂集附錄』 권2, 「年譜」, “[庚戌(1910)] …(中略)… 先生曰: ‘文者所以載道也. 道不備則雖有何益? 吾嘗有程子火中庸之意, 而亦未遽決, 實有不得已也.’ 蓋先生無意著述, 而其所存者, 義理之肯綮也.”

올러 斥邪衛正과 尊華攘夷로 대변되는 의리는 『의당집』을 관통하는 내용이다.

심지어 그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한 시에서도 전통적인 성리학적인 관점에 충실하다. 따라서 시의 본질은 性情의 바름을 표현하고 시의 효용은 심성의 도야를 추구한다는 栗谷 李珣(1536~1584)의 주장과 관련이 깊다.⁸⁴⁾ 더욱이 의당은 경서로 대변되는 성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학자로서의 삶을 영원한 바, 상당수의 작품은 경서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는 단순히 의당이 오랜 기간 강학 활동에 매진하며 후학을 양성한 학자로서 당연한 귀결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의당은 혼란한 시대 상황에 맞서 척사위정과 존화양이에 입각한 처의 관으로 대응하고, 절명시를 남기고 자정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학자로서의 본분을 고수한다. 나라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처한 시기에 시대의 儒宗으로서 처의관에 입각한 의당의 자정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83) 『論語』, 「述而」, “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84) 李珣, 『栗谷全書』 권13, 「精言妙選序」, “詩雖非學者能事, 亦所以吟詠性情, 宣暢清和, 以滌胸中之滓穢, 則亦存省之一助, 豈爲雕繪繡藻, 移情蕩心而設哉?”

<參考 文獻>

- 金道鉉, 『碧山集』, 국립중앙도서관.
- 金得鍊, 『環珍吟艸』, 한국학중앙연구원.
- 朴世和, 『毅堂集』, 奈堤文化研究會, 2002.
- 宋時烈, 『宋子大全』(한국문집총간 108~116집)
- 李珣, 『栗谷全書』(한국문집총간 44~45집)
- 田愚, 『良齋集』(한국문집총간 332~336집)
- 黃玟, 『梅泉集』(한국문집총간 348집)
- 이희목, 『애국계몽기 한시자료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 구완희, 「의당 박세화의 강학활동」, 『조선사연구』 제23집, 조선사연구회, 2014.
- 권오영, 「박세화의 사상과 현실 인식」, 『근대이행기의 유림』, 돌베개, 2012.
- 김종수, 「毅堂 朴世和의 關異端論」, 『열상고전연구』 제47집, 열상고전연구회, 2015.
- _____, 「毅堂 朴世和의 『昌東日記』 解題」, 『동방학』 제30집,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4.
- _____, 「毅堂 朴世和의 『自警錄』 연구」, 『인문과학』 제57집,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15.
- 박동욱, 「絶命詩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 이상주, 「朴世和의 用夏九曲과 관련 詩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 제46집, 한국고전문학회, 2014.
- 이희목, 「愛國啓蒙期の 漢詩」, 『한국한문학연구』 제15집, 한국한문학회, 1992.
- _____, 「愛國啓蒙期 漢詩에 나타난 民族的 傳統」, 『한문학보』 제18집,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大訥 盧相益의 亡命生活과 遺民詩」, 『한문학보』 제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日帝 强占期 漢詩 小考」, 『인문과학』 제45권,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10.

- 임형택, 「黃梅泉의 詩人意識과 詩」,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 _____, 「한국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논리」,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 _____, 「수당 이남규와 그의 奏議에 대한 이해」,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 정경훈, 「의당 박세화의 문집과 문학 일고」, 『민족문화』 제44집, 한국고전번역원, 2014.
- _____, 「韓末 忠北 四郡지역 儒林의 동향 - 朴世和와 毅堂學派를 중심으로」, 『동서철학』 제87권, 한국동서철학회, 2016.
- 조태성, 「義와 仁의 감성적 경계, 절명시의 비극적 숭고미」,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2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3.
- 최 식, 「1896년 俄羅斯 使行, 『環璆日記』와 『環璆金艸』-使行錄의 觀點에서 바라본 俄羅斯 使行」, 『한문학보』 제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Outlook on Facing Righteousness and Death Poem of Ŭidang(毅堂) Pak Se-hwa(朴世和) / Choi Sik**

This paper studies Ŭidang(毅堂) Pak, Se-hwa(朴世和, 1834~1910)'s life who strived to concentrate on the educational activities and founded a school based on Jecheon, Chungbuk in a turbulent era. At that time, a considerable number of intellectuals chose their life in various ways, such as suicide, asylum and struggle. Ŭidang agitated for ch'ök-sa-wi-chǒng(defending orthodoxy and rejecting heterodoxy, 斥邪衛正) and chon-hwa-yang-i(respect for China and drive out the barbarians, 尊華攘夷), and provided socialists of ch'ök-sa-wi-chǒng with theoretical basis, but he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struggle on account of illness. Also, he planned to seek asylum in West-Gando, China to leave chosǒn, but he fell by the wayside. He focused on training younger students all his life, not to take up a public office, and decided to suicide at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period. His last choice was suicide based on loyalty neither asylum nor struggle. He thought that two watermelons cannot be held under one arm and there are no two kings for the people, and that China cannot be a barbarian and Human cannot be birds and beasts. It is important for him to keep an outlook on facing righteousness(處義觀) depending on ch'ök-sa-wi-chǒng and chn-hwa-yang-i.

Ŭidang wept bitterly hearing news of a country perishes differ from Intellectuals that believed in Zhu Xi(朱子) who insist that a country might perish but Tao(道) might not perish. Ŭidang thought that it would be better to die than to live so disgracefully, and then decided to suicide. He

* Senior Researcher of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Dept.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choicesik@hanmail.net

fasted for twenty-three days before death, and left a will that showed his outlook on facing righteousness. In addition, he wrote two death poems that revealed his awareness of a reality.

【Key Words】 Pak Se-hwa(朴世和), ch'ök-sa-wi-chöng(defending orthodoxy and rejecting heterodoxy, 斥邪衛正), chon-hwa-yang-i(respect for China and drive out the barbarians, 尊華攘夷), Outlook on Facing Righteousness(處義觀), Suicide(自靖), Death poem(絶命詩)

투고일 :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12월 19일, 게재확정일 : 12월 19일